

마음 열기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시다.

나는 매 식사마다 식사기도를 하나요?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9장 28-33절, “눈이 점점 밝아짐”

맹인을 고치신 기적 가운데, 세 사람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보셨고, 제자들은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선포하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에서 씻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다시 보게 된 기쁨을 함께 누리기는커녕,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 따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습니다. 이 역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맹인의 부모입니다. 유대인들(바리새파)은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18-19절). 이에 맹인의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셨다고 말하며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대답합니다(21절). 이와 같이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22절). 부모는 이것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자식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법과 제도,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성도를 두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형식과 전통,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만 옳다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요3:19-21).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 자체로 기뻐해야 함에도, 저들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일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악함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져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도 믿

지 못하고, 은혜가 임해도 받지 못한 채 메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 내 안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어 그것을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눅16:13),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세상과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다 마귀에게 붙들려 진리를 거역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다가, 세상의 것에 나를 먼저 맞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맞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이 첫째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첫째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에는 거짓된 말과 생각 뿐 아니라, 그 말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훈계만 하고, 정작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바리새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주장을 받아 은혜를 대적하고 성도를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요8:44). 오늘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행함과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고침을 받은 맹인입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11절)”이라 불렀으나, 곧 “그는 선지자(17절)”라 고백했고, 마침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32-33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믿음이 약해졌지만, 맹인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 봉사와 사명, 교제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할 때 막혔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세상의 법과 사람의 눈치에 넘어져 양심을 속인 부모, 악함과 세상 욕심에 빠져 빛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맹인은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영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끊임 없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날마다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세상의 법이나 사람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타협했던 적이 있나요?
2. 지금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간단히 나누어 주세요.
3. 말과 생각만 앞서고 행함과 순종이 안되는 모습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회개합시다.
3.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9월 바이블로 가이드 (3) : 빌레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번 달 바이블로의 주제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용서”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쳐 사형 위기에 처했던 종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합니다. 오네시모를 통해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하고 버려진 인생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빛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며 대신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대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번 주 묵상 포인트는 “용서로 완성되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깨닫는 것에서 나옵니다. 내 부끄러움과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이번 주에는 나에게 상처 준 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품고 용서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FAMILY 나눔

2026년 9월 13일

눈이 점점 밝아짐

요한복음 9장 28-33절

